

편측교합이 저작근 활성화 및 교합접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

고준원, 진태호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

악구강계는 측두하악관절, 근육신경계, 치아 그리고 지지조직의 복합적 구성체로 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밀접한 생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.

그 동안 정상인과 측두하악장애 환자에 대한 저작근 활성화 및 교합접촉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어 왔다. 측두하악장애환자의 대부분이 편측저작을 하고 있고 정상인 가운데에도 습관적 편측저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. 이에 편측저작을 하는 환자군과 편측저작을 하는 정상군의 저작근 활성화 및 교합접촉을 연구하여 편측저작이 하악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.

원광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측두하악장애 환자중 편측저작을 하는 환자 25명과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생중 편측저작을 하는 학생 30명을 선택하여 Biopack system과 T-scan을 이용하여 저작근 활성화도 및 교합접촉수, 교합접촉력 등을 상호 비교하였다.

1. 측방유도 형태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견치유도군에서 비견치유도군보다 주저작측 및 반대측 모두에서 근활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. 그러나, 교합접촉양태는 양군간에 일정한 경향이 인정되지 않았다.
2. 교근의 활성화도에서는 주저작측 및 반대측 모두에서 대조군이 환자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. 그러나, 전측두근에서는 차이가 없었다. ($p < 0.05$)